"우버 기업가치 자동차 빅3 합친 것보다 높아"

내년 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기업가치 1,200억 달러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미국 3대 완성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최근 산업 변화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17일 '매일경제' 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상장을 앞둔 우버에 기업가치평가 제안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가치평가 제안서를 전달하는 것은 주관사가 기업공개(IPO)를 하기 전에 진행하는 일반적 절차다.

WSJ는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랄 만한 수준의 제안액이다. 이는 우버가 자금을 조달할 때 평가된 기업가치의 거의 두 배 수준이며 GM, 포드, FCA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고 전했다.

우버의 예상 기업가치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7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회사가 빠르게 안정화하면서 가치평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우버 상장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올해는 실리콘밸리 IPO에 대해 시장이 우호적이었지만 내년에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WSJ는 "우버가 예정대로 상장할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제시한 기업가치로 상장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며 "올해 기술 기업 등에 IPO 시장이 우호적이었지만 우버가 상장 준비를 마칠 때쯤이면 상황이 덜 우호적일 수 있다." 고 평가했다.

우버는 자사에 투자한 소프트뱅크그룹과의 합의에 따라 내년 말까지 상장해야 한다. 소식통은 우버가 내년 말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거나 최소 5년간 지분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제2시장에서 지분을 팔 수 있다. 이 경우 우버 지분 소유자가 급격히 많아져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

중국, 미국채 보유 규모 14개월래 최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채의 일부를 매도하며 중국의 미국채 보유 규모가 14개월래 최저치로 축소됐다.

미 재무부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 규모는 1조1,650억 달러로, 7월의 1조1,710억 달러에서 축소됐다. 이는 석 달째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17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된데다, 위안화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에서는 중국의 미국채 보유 규모 변화가 뜨거운 관심거리였다. 중국이 미국채를 팔아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Bank of Montreal의 미 금리 전략가 존 힐은 "더딘 감소 추세가 그리 놀랍진 않다." 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감소 흐름이 이전보다는 더 완만하고 훨씬 더딘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2015년, 2016년 상황과 직접 비교하기는 그렇다." 고 덧붙였다.

중국에 이어 미국채 보유 2위 국가인 일본은 지난 8월 보유 규모가 1조300억 달러로 7월의 1조360억 달러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중국의 미국채 매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팔면 다른 매수자가 있을 것" 이라면서, 중국이 미국처럼 경제를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미국채 매도는 중국에게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일인 만큼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 숨은 부채로 침몰할 것"

중국의 드러나지 않은 부채가 최소 40조 위안(5조8,000억 달러)에 달해 중국 경제가 침몰의 운명의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16일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중국 지방 정부의 보고되지 않은 부채 규모가 최소 5조8,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다. S&P는 중국 지방 정부가 단행한 인프라 투자 규모와 중앙 정부의 승인 하에 조달된 자금 규모의 차이를 근간으로 이와 같이 추정했다.

S&P의 추정대로라면 지난해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0%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유로존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숨은 부채에 대한 논란은 수년간 끊이지 않았다. 지방 정부뿐 아니라 기업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빚이 위험 수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충격을 언제까지나 모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를 감행할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S&P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중국의 부채 규모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 이라며 "이에 따른 신용 리스크는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타이타닉과 같다." 고 강조했다. 규제와 감독이 느슨한 지방 정부 및 국영 기업, 기관들의 방만한 자금 거래와 불투명한 장부 처리가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걷잡을 수 없는 신용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당신의
Dream Home을
최상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
최상의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릴것 입니다

스페샬

라미네잇
최고급
인조 강화마루
12.3/mm
Up to $2.99

키친 캐비넷 스페셜 Up to $4,900
W/그라나잇 (사이즈 10X10)

키친 캐비넷 공사시
16 게이지 스텐레스 더블 싱크볼 무료 증정

공사 후 A/S 문제는 연락과 동시에 오너가 즉시 처리 해드립니다

Dream Home Interior
714-383-3277
e-mail: dream7joy@gmail.com
kakao tok.ID - benz7joy
4061 Ball Rd, Cypress, CA 90630